

민주 후보 경선 권리당원 참여율 ‘뚝’

광역단체장 40%대·광역의원 투표율 50%대 마감 후보간 비방 난무·광역 단체장 후보에 줄서기 여파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지방의원 경선에서 당원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치러진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40%대에 그친 데 이어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지방의원 경선마저 당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권리당원 2명 중 1명은 투표를 포기했고, 그나마 전남지역은 60~70%를 기록한 지역도 있었지만 대부분 각 후보 진영에서 동원한 측근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리당원의 경우 매월 당비를 납부하는 만큼 당내 경선에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

만,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는 정책 경쟁보다는 경선 후보들 간 비방이 난무했던 점이 낮은 경선 참여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후보들이 표밭을 다지기보다는 광역단체장 출마자에게 줄을 서는 것을 선택하면서 당원들의 무관심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입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당원 모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에 마무리된 광역의원 경선 결과 투표율은 45~50%였다.

광주시당은 최근 광주지역 20개 선거구 중 8곳의 단수 공천 지역을 제외한 12곳에서 권리당원 100% ARS투표로 후보를 정했다. 또 5개 자치구 기초의원 후보자 59명 중 51명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최근 권리당원 ARS투표를 한 도내 29곳의 광역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의 투표율은 지역 따라 40~70%를 기록했다.

앞서 막을 내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투표율은 40%대였다.

광주시장 경선 중 권리당원 조사에서는 권리당원 4만3381명 중 1만8567명이 투표해 42.08%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남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5만7000명 중 2만6204명이 투표해 45.97%의 투표율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국내 정당의 권리당원 중 적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하수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경선이 치러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당원 투표 50%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선은 결코 흥행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당원 투표율이 낮을수록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각 정당이 지방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당 4선 강길부 “홍 물러나라”

“사퇴 안하면 중대 결심”...홍준표 “조용히 나가라”

당 공천에 대한 반발해 4선의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이 3일 “홍준표 대표가 이번주까지 사퇴를 안 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중대 결심에는 탈당까지 포함한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강 의원이 당분간 무소속을 유지하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울산 울주군 당협위원장인 강 의원은 울주군수 공천과 관련해 한동영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이 바라던 당 혁신, 인적쇄신, 정책혁신은 온데간데없고 당 대표

의 품격 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홍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그는 또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며 “그런데도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당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과 복당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거냐”며 “영통한 명분 내걸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반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판문점선언 비준 땀 특검수용’ 제안에 한국당 “No”

우원식-김성태 원내대표 회동

한국당 “조건 붙으면 안돼”

5월 국회 정상화 조율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3일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줄 테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처리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특검 수용에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이날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한 달째 지속하고 있는 국회 공전 상태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드루킹 수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볼 것’ 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당은 의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연계된 특검 수용은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고 민주당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국당은 오히려 투쟁 강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드루킹 특검 수용을 위한 노숙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그는 “천막투쟁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여당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



“지방분권 시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홍영표 의원, 박병석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득 의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추미애 대표.

/*연합뉴스

며 저도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안과 노력에 한국당은 오직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

으로 화답해 황당하고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식 투쟁하는 것은 협상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한국당의 전제조건 없는 특검 요구는 국회 책무를 저버린 배신행위이며 국회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가 그토록 시급한데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며 국회 정상화를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이 4일까지 특검 수용을 거부한다면 현 국면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孫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 준비”

바른미래 선대위원장 수락 회견...“남북정상회담 대성공”

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 ‘사령탑’에 오른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3일 “바른미래당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오만하지 않게, 국민을 무서워하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 수락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일방적 집중은 부정과 비리를 낳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또 “권력 요직에 있던 사람들의 비리와 도덕적 실추는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 권력 실세들의 오만과 독선의 폐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횡포에 견제구를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선과 독주를 막을 건전

한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과 지방선거 후에 진행될 정계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손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부러움을 금할 수 없고 시샘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문대통령에 욕설’ 조원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송기현(사법연수원 18기) 의원과 백혜련(29기)-김현(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했던 사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지나친 막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미 증거자료가 너무

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 의원이 어떤 말을 하거나 수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갖춰진 상태”라며 “검찰에서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8일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 등으로 부른 데 이어 김정은 여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기쁨조’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남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조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